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2월 11일(주일) 제1184호

이주민과 함께하는 온누리



사진은 지난해 러스타(RUSTA)집회.

온누리M미션, 17일까지 이주민 위한 설날수련회 개최 러스타(RUSTA), 미얀마, 몽골 등 13개국 예배공동체 참가

온누리M미션이 개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설날수련회가 한창이다. 지난 2월 3일 중국어예배를 시작으로 베트남, 네팔, 태국, 필리핀 등 총 13개국 예배공동체가 설날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에는 이주민 9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러스타(RUSTA), 미얀마, 몽골, 베트남 예배공동체는 외부 교회와 연합해서 집회를 개최한다.

러스타는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행사다. 올해 러스타 집회는 온누리M미션, 주한 CIS목회자연합회, Landmarker Ministry, Global Core

Ministry 공동 주최로 열린다. 2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예배(HUG, with God)'를 주제로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한일렉산드라 목사 '아브라함의 예배', 아르좁 목사 '야곱의 예배', 이 펠릭스 목사 '에스더의 예배', 올렉치카 노프 목사 '베드로의 예배', 남에드와르 목사 '사도요한의 예배'를 주제로 강의한다.

미얀마어예배는 부산 수영로교회와 대구 동신교회와 협력해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는 재한몽골인 20여 개 교회와 협력해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불광동 팀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베트남어예배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안산 동산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한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담당)는 "이주민을 위한 명절수련회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이번 설날수련회를 통해 많은 이주민들이 복음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31-491-9650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월요어노인팅집회 10주년 기념집회

2월 12일 오후 7시 서빙고 비전홀

치유와 기름부음이 있는 '월요어노인팅집회'에서 10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한다. 2월 12일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막 오른다.

윤용채 사역자의 찬양, 이기원 목사(회

복사역본부장) 말씀, 치유선포 및 기름부음 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치유와 회복, 기름부음을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32

* 2월 18일자 신문은 설 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강동 온누리교회 2월 25일 창립 10주년

강동 온누리교회가 2월 25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이날 강동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에게 창립 10주년 기념하는 떡을 나눠줄 예정이다.

문의: 02-475-9686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

3월 1일 '순장영성수련회' 서빙고 본당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의 장(場)

2018년 상반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행사가 풍성하게 이어진다. 포문은 3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르는 '순장영성수련회'가 연다. 순장영성수련회는 온누리공동체 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각오를 다지는 축제다. 이번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약 2천명의 순장들이 모여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순장의 목양과 리더십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팀 켈러 목사 초청집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4월 '유기성 목사 영성일기세미나', 5월 '맞춤전도집회', '러브 소나타 샷포로'가 막 오른다. 6월에는 '마리아행진', 7월에는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는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 추모기간이다.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2월 22일	여의도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3일	성북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3일	동작	한동홀	오후 6시
2월 23일	S브릿지	비전홀	오후 6시
2월 27일	서대문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7일	신용산	한동홀	오후 6시
2월 27일	한강	비전홀	오후 6시
3월 2일	중종로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2일	천양사역	한동홀	오후 6시
3월 2일	이촌	비전홀	오후 6시
3월 2일	동대문중앙	시온홀	오후 6시
3월 2일	이수	콘서트홀	오후 6시
3월 3일	고양은평	진관교회	오후 5시 30분
3월 4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오후 5시
3월 4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6시
3월 5일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6일	성동광진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6일	OCC	한동홀	오후 6시
3월 6일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3월 6일	강서	시온홀	오후 6시
3월 8일	가정사역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8일	김포	한동홀	오후 6시
3월 8일	강촌	비전홀	오후 6시
3월 8일	광명	은광교회	오후 7시
3월 9일	관악금천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9일	용산	한동홀	오후 6시
3월 9일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3월 9일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3월 10일	노원	천보산 기도원	오전 10시
3월 11일	특초	순형홀	오후 5시
양재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2월 27일	경기A	화평홀	오후 7시
2월 28일	도곡	화평홀	오후 7시
2월 28일	강남B	온유홀	오후 7시
3월 2일	POINT5	온유홀	오후 8시
3월 2일	양재	화평홀	오후 7시
3월 3일	강남D	목상의집	오전 10시
3월 7일	CMN	드림홀	오후 7시
3월 7일	강남A	온유홀	오후 7시
3월 7일	분당B	화평홀	오후 7시
3월 8일	서초B	화평홀	오후 7시
3월 8일	분당A	드림홀	오후 6시 30분
3월 9일	서초C	드림홀	오후 6시
3월 9일	서초A	온유홀	오후 7시 30분
3월 9일	강남C	화평홀	오후 7시
3월 10일	서초D	화평홀	오후 5시
3월 11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3시 20분
3월 11일	푸른누리	온유홀	오후 3시 40분
3월 13일	송파	화평홀	오후 7시 30분
캠퍼스			
3월 4일	부천 믿음	비전홀	오후 5시
3월 9일	부천(사랑/희락/화평)	미정	오후 7시 30분
3월 10일	부천 소망	미정	오후 4시
3월 8일	수원(북누리/서누리)	비전홀/경천홀	오후 8시
3월 9일	수원(남누리/동누리)	경천홀/비전홀	오후 8시
3월 2일	대전동누리/세종/유성/중세	누리/303호/비전/본당	오후 7시 30분
3월 9일	남양주(연합예배)	수동충신교회 수양원	오후 8시
3월 4일	평택(연합예배)	본당	오후 4시
2월 24일	인천(연합예배)	제너셈	오후 7시
3월 8일	강릉 믿음	본당	오후 8시
3월 10일	강릉 말씀	본당	오후 5시
3월 4일	양지(동누리/서누리)	킬보른홀/박모세홀	오후 4시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꽤 근사하다. 아름답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교도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클래식 음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도소뿐만이 아니다. 호스피스 병원, 이주민공동체와도 너무 잘 어울린다. 클래식 음악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는 최상의 전도도구가 분명하다. 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이경애 권사(일산공동체)와 김인순 집사(양천공동체)다. 그녀들의 연주는 화려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그녀들의 주요 무대는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교도소와 바이올린

이경애 권사, 김인순 집사의 ‘더 스카이 앙상블’



음악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김인순 집사(좌)와 이경애 권사(우).

클래식은 고상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정장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장식된 콘서트 홀에 앉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방법이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소외되고, 외롭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들으면 더 좋다. 클래식 음악보다 따뜻한 위로가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클래식 음악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음악일지도 모르겠다.

이경애 권사와 김인순 집사가 선보이고 있는 클래식 음악회는 죄수복이나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관객이다.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함께 박자를 타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면서 깊이 소통하는 것도 똑같다. 이 권사와 김 집사는 바로 이 매력에 사로잡혀 전국 방방곡곡 봉사를 다닌다.

“저희들이 주로 공연하는 곳은 교도소, 샘물 호스피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주민공동체 등이예요.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누구보다 가까운 25년 지기 파트너

이경애 권사는 비올라, 김인순 집사는 첼로 연주자다. 둘은 25년 지기 파트너다. 25년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 2부 챔버를 섬기면서 처음 만났다. 이 권사가 20살은 많지만 둘은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다.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애뜻함이 부러울 정도다.

평생을 연주자로 살아온 두 사람은 음악이 주는 회복과 소통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권사는 재소자들을 섬기러 왔다가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다.

“25년 쯤 됐을 거예요. 그때는 악기연주자가 아니라 찬양사역팀 소속으로 재소자들을 섬겼는데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재소자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을 뿐인데 흥악하고 무서울 것 같은 재소자들이 형제자매로 보이더라고요.”

김 집사는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알게 됐다.

“미국에서 호스피스 병원을 다니면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음악을 매개로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봉사를 하던 중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문득 재소자들에게도 음악을 들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2016년이다. 김인순 집사는 귀국하자마자 이경애 권사와 팀을 이뤄 연주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둘의 첫 사역지는 한마음공동체였다.

“한마음공동체에서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음악을 자주 사용했어요. 권사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한마음공동체에서 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김인순 집사가 주사랑찬양사역팀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하게 됐다.

“주사랑찬양사역팀이 교도소를 방문하는데 악기를 연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해서 지원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덜덜 떨면서 악기를 켰어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재소자들을 위한 봉사에 실제로 하려고 하니 너무 무서웠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고개를 꼭 숙이고, 바들바들 떨면서 연주를 했다. 다행히 첫 곡 ‘축복하노라’를 연주하는 순간 긴장이 풀렸다. 고개를 들어 재소자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재소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눈물 젖은 연주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한 교도관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재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음악이에요. 딱딱해진 재소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음악만한 게 없거든요. 감동적인 연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싶어서

그날 교도소 봉사를 마치자마자 이 권사에 게 연락을 했다. 함께 재소자들을 섬기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40~50분 정도 공연을 하려면 더 많은 팀원들이 필요했다. 비올라와 첼로 연주만으로도 공연을 할 순 있지만 최소 4명은 있어야 풍성한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팀원들을 보내주셨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4중주를 만들었어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뵈지 않았어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지요.”

그렇게 모인 연주자들은 ‘더 스카이 앙상블(The Sky Ensemble)’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다니고 있다. 넬라판타지, 찬양, 영화음악, 형제리안 댄스 등 누구나 알만한 곡을 엄선해서 40분 동안 공연을 한다. 그러면서 재소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면서 소통하고 있다. 재소자들을 위한 기도는 덤이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재소자들의 마음이 열렸다. 한 한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이 눈물 흘리는 미

결수를 본 적이 있대요. 막 감옥에 들어온 미결수가 저희의 연주를 듣고 위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셨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재소자들을 보고나서 교도소 공연을 일회성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 성도님께 재소자들을 섬기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 분이 새사람사역팀 팀장님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를 방문해서 연주하고 있어요.”

재소자들을 섬기는 횟수가 늘어나고, 더 많은 재소자들을 만날수록 더 섬기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다른 곳에도 눈길이 갔다. 교도소에 이어 병원에도 찾아가다. 한 달에 한 번씩 한샘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가 죽음을 앞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다. 석 달에 한 번씩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수요일예배에서도 봉사를 한다.

“호스피스 병원에는 죽음을 앞둔 환우들이 계세요. 환우들이 천국에 가시는 길을 배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꼭 듣고 싶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77세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을 위해서 생일 축하곡을 연주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녀들의 섬김은 이제 끝이 아니다. 김포의 네팔 교회와 캄보디아 교회를 위한 연주회도 일 년에 1~2회 하고 있다.

많은 곳에서 봉사하면서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컸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음악적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늘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경애 권사와 김인순 집사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나서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겁내지 마세요. 섬겨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섬길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섬김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자연에도 수많은 신비가 존재하고, 인간의 몸에도 신비가 존재합니다. 모든 신비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신비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전혀 없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물질에서 나올 수 없는 ‘영혼의 신비’는 어떤 과학적 설명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신비는 ‘생명으로 출생하는 신비’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입니다. 세상에 전혀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신비도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변화를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예식이나 제도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힘, 결심, 제도로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오늘 본문에 한 유대의 지성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결의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없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이름은 헬라식입니다. 그는 아마도 지중해 연안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했고, 엄격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의 랍비이자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지배자,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매우 야심 찬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니고데모의 고민과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배워왔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위치로 볼 때 밤에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혼자 찾아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조용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매우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의문을 해소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절).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로 볼 때 니고데모가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최고의 경이로운 표현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3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인사에 평범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아시고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표적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팔복과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니고데모의 고민과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배워왔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차적인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율법 준수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인 출생이나 민족적인 틀이나 종교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처럼 늙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4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육체적인 재출생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5-8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 지혜, 종교적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다시’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출생, 초월적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육체적 생명도 초월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위로부터 주어져서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출

생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부모에게 매이도록 만들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매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남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니다. 소리는 들리고 현상은 보이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현상과 모습과 결과는 나타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새 생명의 출생

예수님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놀랍게도 헬라어 ‘프뉴마’라는 단어도 영과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가 바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이루어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출생입니다.

바람의 존재가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의 역사도 체험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불순물이 들어오면 토합니다. 회개는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없다면 토해내는 일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토해낼 수 있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13면에 계속)

신년
기획

2018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장애인과 친구 되기

예수님은 장애인과 함께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장애인을 가장 잘 품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

장애인마크



세 가지 장애인마크의 차이가 무엇일까? 만약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첫 번째는 장애인 국제표준 마크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표준 장애인마크다. 세 번째는 뉴욕시 장애인마크다. 세 번째는 사라 핸드렌이 디자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애인마크보다 세 번째 장애인마크가 훨씬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마크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모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과거 서양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식 차이

고대에서 장애인은 격리대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아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고 했고, 플라톤은 “장애아를 사회에서 격리시켜라”고 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냉소적인지를 알 수 있다.

로마법에서는 모체에서 출생해서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인정했다. 당시 법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을 리베르강에 던져 익사시키거나 투기장과 흥행장, 귀족들의 연회에서 노리개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

중세 유럽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고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을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으로 여겼다. 장애인에게 끔찍한 고문과 사형집행이 자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잔질자(殘疾者, 몸에 질병이 남아 있는 사람), 독질자(篤疾者,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린 사람), 폐질자(廢疾者,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라고 불렀다. 근대 이후에는 ‘불구자’라고 지칭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살았던 장애인들이 오늘날 장애인들보다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고 차별하는 일이 적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왕이 직접 장애인들에게 잔치를 베풀거나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장애인들을 구휼했다. 장애인을 학대한 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렸고, 장애인이 무고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고을 읍호를 한 단계 강등시켰다. 장애인을 천시했던 서양과 달리 고려와 조선은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쳤다.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희종 4년 10월 올해에 나이 70세 이상인 노인, 효자, 절의 있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

이 친히 술잔을 권하고, 병자에 환과고독, 독질, 폐질자(장애인)에게 크게 잔치를 베풀고 물건을 하사하되 차등 있게 하였으며, 주·부·군·현에서도 이러한 예를 본받았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들(장애인)에게 환곡을 우선 베풀고, 거처할 집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자립도 중요하게 여겼다. 점복사, 독경사, 약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 힘썼으며 주요 관직에도 채용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 덕분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중증척추장애인이었던 허조(1369~1439년)는 조선 초기 우의정과 좌의정을, 뇌전증이 있었던 권균은 종종 때 우의정을, 지체장애인 심희수는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냈다. 청각장애인 이덕수는 영조 때 대제학과 형조판서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서 박연(1378~1458년)은 다음과 말을 남겼다.

“옛날의 제왕은 모두 시각장애인에게 현송(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음)의 임무를 맡겼으니 이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인식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뀐다

그런데 근대 이후 문명이 들어오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오해와 편견이 심해졌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졌다. 혹자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병원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막막하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치료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2014년 발달장애인 아들(5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기모(36)씨 부부가 유서에 남긴 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와 인식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과거 서양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몹시 나빴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많이 개선됐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식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후퇴를 했다.

지난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장애인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씁쓸한 현실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일상이다. 오홍조, 박현 부부(부천 온누리교회)는 아들 오민건(8세, 부천 사랑부)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마다 아들 친구 부모들의 눈치가 보인다.

“사실 아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한국의 발달장애인은 21만855명(2015년 기준)이다. 전체 장애인(249만408명)의 약 8.5%다. 2011년 이후 장애인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 비해 발달장애인은 한 해 평균 7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전체 발달장애의 90%)와 자폐장애로 구분된다. 지적장애 4급을 제외한 발달장애인들은 모두 3급 이상 중증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은 최종 목표이자 꽃이다. 그러나 성인 발달장애인의 78%가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교육센터, 재활시설에서 외면당한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전국에 총 18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2016년 권리구제 제도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이 전국 합산 145명에 불과하다.

한국과 달리 현재 서양의 장애인 복지는 매우 발달했다. 독일에서는 장애인들이 16살 때부터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칙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들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법에 따르면 2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일자리 6%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300~500배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프랑스 장애인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장애인 52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

“장애인들과의 차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공화국의 조약이다.”

프랑스는 이 같은 이념을 기반으로 1975년 장애인 복지정책을, 1987년 장애인 근로자법을 만들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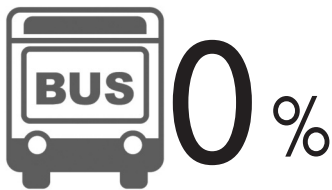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방법

장애인들을 가장 잘 품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이미 알려 주셨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들과 함께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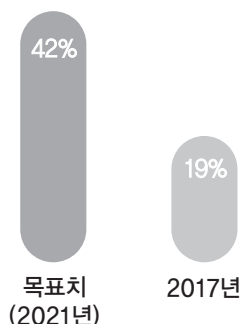
첫째, 예수님은 장애인과 병든 자를 대면하셨다. 구약의 규례를 따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였다. 진 밖에서 살아야 했다(레 13:46).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눈으로 보는 것조차 금기시 했다. 이러한

2017년 국내 저상버스 도입현황

고속·시외·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현황



목표치
(2021년)

2017년

출처: 국토교통부 '제3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앓은뱅이, 불구자, 소경, 병어리, 문둥병자를 만나셨다(마 15:30, 막 1:40).

둘째, 예수님은 장애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막 1:40~41).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은 ‘함께 느낀다’ 또는 ‘아픔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장애인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크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의 상한 감정을 깊이 공감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장애인들의 상처와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은 장애인들과 환자들의 몸에 스스럼없이 손을 대셨다. 예수님의 접촉은 사랑의 접촉이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접촉이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대면하시고, 공감하시고, 접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우주 형제(11세, 부천 사랑부의 아빠 이상태 성도와 박상우 형제(20세,



사진은 지난해 서빙고 예수사랑부 수련회.

서빙고 사랑부의) 엄마 조재현 성도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저 장애인들과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

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전문가 기고

장애인과 친구 되기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리전트 칼리지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영적 성장을 ‘우정을 쌓아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요 15:14)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은 특별히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친구라고 부르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친구와 이야기하듯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친구 되기’의 우선순위를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뒤에 둔다. 그러다보니 신앙적으로 헌신된 사람일수록 교회 봉사에는 공을 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웃과 우정을 쌓고 친구를 만드는 데에는 노력을 덜 기울인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친구 요나단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다윗이 복수의 화신이 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쓰실 수 있었다. 이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친구 한 사람의 존재가 적대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친구가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장애인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장애인을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보다 ‘장애우’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벽은 1977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서 교육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만날 기회가 사라졌고 그 이후부터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이 특별한 일로 간주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원장 아들이 소아마비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 목사님 아들도 장애가 있었다. 그때는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로 지냈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속에서 친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과 친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여길수록 친구 되기가 쉽다.

독일의 완구기업 플레이모빌은 드레스를

입은 시각장애인, 휠체어를 탄 남성 장애인 인형을 만든다. 영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토이 라이크 미(Toy like me)’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다. 토이 라이크 미는 장애인 부모들이 완구회사에 더 많은 종류의 장애인 인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캠페인이다. 어려서부터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하다보면 실제로 장애인을 만나도 구별하지 않고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나 완구는 대부분 비장애인의 모습이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교육할 뿐이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교육하지는 않는다.

장애인과 만나는 기회 만들기

장애인과 친구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장애인과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쉽게 친구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장애인과 만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에티켓이 있다.

첫째, 장애 아이와 부모를 만났을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질문하지 않는다. 둘째, 시각 장애인과 이야기 할 때는 시선을 맞추고 대화한다. 셋째, 발달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에티켓 몇 가지만 알아도 쉽게 장애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만남조차 시도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1로 매칭해주는 사업적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3명 중 2명이 비장애인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을 찾다가 시작하게 되었다.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평균 25명의 비장애인 친구가 생겼다. 장애인들의 사회성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과 친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담된다면 비정기적으로 기회를 만들면 된다. 온누리교회에는 총 10개의 장애인 부서(사랑부)가 있다. 장애인 부서를 돕는 것도 좋다. 실제로 지난해 꿈사랑부 여름 수련회를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한 다락방이 섬겨주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장애인들에게 친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사회성이 높아지고, 자립에도 도움이 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찾기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속 개월이 다른 장애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만약 발달장애인들이 많은 비장애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사회성이 키워진다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이고 자립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친구 되어 주는 것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한 가정을 살리는 사역이 될 수 있다. 장애인과 친구 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설 · 감 · 사 · 예 · 배

가정 예배 지침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가정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

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하며 가족들의 특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보다 더 감동적인 명절이 될 것입니다.

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550, 통248).....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민수기 6:22~27.....	가족 중에서
설교	이렇게 축복하라.....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때로는 너의 앞에 (경배와 찬양 112)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이렇게 축복하라

들어가는 말

성경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 7:7).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축복(祝福)에 전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이란 모두 ‘왕 같은 제사장’ 이기에(벧전 2:9) 성도들은 누구나 축복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밝아온 새해, 온 가족이 아낌없이 서로를 축복하기 원하며 또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39:7~12.....	다같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새413, 통470)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50:24~26	가족 중에서
설교	죽음 저 너머의 비전	설교자
찬송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경배와 찬양 254)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죽음 저 너머의 비전

들어가는 말

고인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해주

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으로”

요셉은 자손 3대를 보며 110세를 살았고, 그의 임종 이야기로써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였다가 한 인간의 입관으로 끝을 맺는 창세기는 겉으로 보면 미완의 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위대한 희망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지막 유언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첫째,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24절).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의 끝부분으로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너’란 단순히 아무나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서원한 ‘너’를 가리키는 것이며, ‘너를 지키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너의 서원’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실인이란 구약시대에 여호와께 드려진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께 헌신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나실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는 무엇보다 더욱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기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품고 바라는 삶의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둘째, “여호와는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25절). 여기서 ‘은혜’ 역시 나실인의 서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나실인의 서원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서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벧 2:13).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새해, 우리의 삶의 소

원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셋째, “여호와는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26절). 여기서의 ‘평강’ 역시 나실인의 서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서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상되는 모든 의심과 불안에 대하여 이 평강의 축복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기드온은 10만이 넘는 적군과 싸우기 직전 불안과 염려를 떨치는 ‘여호와 살롬’의 단을 쌓았고(삿 6:24),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롬 16:20).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새해, 우리의 삶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평강을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나가는 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며 그러한 사람들의 서원(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과 두려움과 의심과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새해 우리 모두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24절)는 첫 번째 고백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삶으로”

요셉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두 번째 고백을 남깁니다(24절).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시켜 불러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요셉은 삶의 가치를 애굽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에 버금가는 위치에 오르는 입지 전적인 인물이었지만 이러한 현실적 성공과 삶의 안정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상황에 따라 살지 않았고 섭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어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일원이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삶으로”

요셉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세 번째 고백을 남깁니다(24절). 요셉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단순히 자신을 구별시키려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은 유업, 곧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확고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당부하며 출애굽을 예고한 것입니다(25절).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비전을 이루면서 Acts29를 예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사랑하는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남겨진 우리들에게 더욱 뚜렷한 유업이 메아리칩니다. 첫째, 인생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둘째, 세상적인 성공이나 현실적인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셋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에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일깨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Acts29는 더욱 더 분명해집니다.

새해에 보면 좋은 영화 'Wonder'



영화 '원더(Wonder)'의 주인공 '어기'는 '트레처폴리스 증후군'으로 인해 기형적인 얼굴로 태어났다. 어기는 남들처럼 숨을 쉬고, 앞을 보고, 소리를 듣기 위해 수술을 27번이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괴기 한 얼굴이었다. 어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쓰고 다녔다. 10살이 되어 학교에 첫발을 내딛은 어기가 드디어 헬멧을 벗었는데 친구들의 겁에 질린 눈빛을 봐야 했다.

영화 '원더'는 어기가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그려나간다. 하지만 변화는 그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친구 '잭'은 어기의 외모를 놀리기 바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어기의 내면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기와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게 된다. 어기의 누나 '비아'는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는 바람에 사춘기의 아픔까지 혼자 삼켜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향한 사랑의 뭉치 언제나 부모님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미란다'는 이혼으로 깨진 가정에 대한 아픔을 어긋난 방식으로 표현하는 비아의 친구이다. 미란다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는 비아와 그 가족을 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나간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어기가 있다.

어기는 영웅이 아니다. 등교 첫날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 앞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점심시간에 혼자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자신에게 다가온 친구에게 독설을 내뱉었다. 하굣길에는 용기내서 벗었던 헬멧을 굳은 표정으로 다시 썼다.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부모님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어기는 어린이아이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몇 번의 분기점을 통해 성장한다. 그 시작은 과학 선생님의 도전이었다. 홈스쿨링으로 공부했던 어기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교장선생님의 격려를 듣고 교실에 들어섰는데 어떤 일인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늘 질문해야 한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다.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체성 확립은 관계의 진정성을 낳았다. 어기는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 남들과 똑같이 10살짜리 어린이의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는 어기의 모습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지게 되고,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의 사랑이 결정적이었다. 사실 어기의 부모는 어기보다 더 긴장했고, 더 마음 아팠지만 끊임없이 어기를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했다. 자녀문제 때문에 자칫 부부관계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유머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 사랑과 신뢰는 어기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더해줬다.

영화 속에 나타난 어기의 모습이 어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는 타인의 기준과 평가로 만들어진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누구 하나 그 상처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선통 어울리려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더 절망하고,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어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다. 상처는 그대로지만 서서히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기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을 발견한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영화 'Wonder'는 북미에서만 1억불 이상의 수익을 남길 정도로 흥행했다. 배우들의 호연과 탄탄한 스토리도 한몫했지만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한 관계에 목말라하고, 수많은 영웅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비교절하는 이 세대의 갈급함을 해소해주는 한 모금의 생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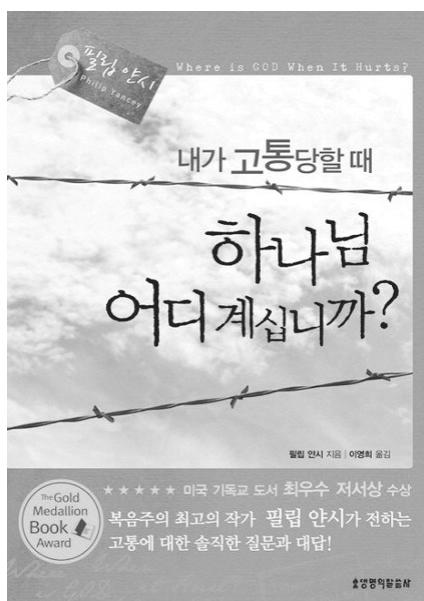
기도하며 꿈꾸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원더(wonder)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더(wonder)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재원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해에 읽으면 좋은 도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계십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신비



예전에 만난 어느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는 세디스트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고통으로 몰아낸 하나님을 결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믿는 성도들도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막상 고통이 닥쳐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라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본다. 그 고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

필립 안시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계십니까?>는 고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안락한 삶이라고 경고한다. 스스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조언한다.

저자의 이러한 생각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C.S. 루이스다. 저자는 C.S. 루이스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고난을 이해하고 있다.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 받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자신의 즐거움보다 높은 차원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셨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이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그분께 향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자기만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새로운 신앙심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자는 고통에 대한 의미를 쉽게 제시하지 않는다. 고통을 잘 대처한 자신의 이웃이나 사례들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보여주려 한다. 그 이유는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고통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헤쳐 나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책의 말미에 필립 안시는 벌코우워의 말을 빌려 "고통은 영원의 위대한 미완성품"이라고 정의한다. 고통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고, 동시에 어느 날 우리가 있을 영원을 갈망하게 한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브라이언의 가족이 그 사례다. 브라이언은 운동경기 중에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되었다. 의학적으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비극과 마주해야 했다. 브라이언의 가족들은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치

유를 믿는다.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다. 언젠가 분명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었다. 브라이언 가족에게 찾아온 고통이 오히려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강인하게 한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도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본다. 그렇기에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통의 축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브라이언의 가족처럼 다시 한 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계십니까?>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상처 입은 의사의 손은 바쁘다. 아픈 데를 살피는 일로 피 흘려내리는 그 손 밑에서 우리는 느낀다. 체온표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치유자의 깊은 사랑."



최용준 목사
(여의도공동체)

기고 온누리 호스피스학교의 역할

“우리 아빠는 멋진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서정호 집사 천국 가는 길 ... 끝까지 함께 있어주기

참 눈물 나는 사역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임종하는 순간까지 함께 있어주는 온누리 호스피스학교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는 환우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신체적,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숙 목사가 한 성도의 사례를 통해 온누리 호스피스학교의 역할을 알리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정숙 목사
(서울삼성병원 원목)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이라 그날 저녁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전 2시 6분 전 화벨이 울렸다. 서정호 집사님의 아내 임영미 집사님이었다.

“목사님 관찰실에 왔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둘러 가운데로 갈아입고 기독교실을 빠져 나갔다. 병원은 적막감이 났었다. CCTV 불빛만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8층 관찰실로 가는 길에 야근 중인 간호사들에게 인사했더니 “관찰실에 계십니까?”라고 했다. 암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관찰실에 들어서자마자 서 집사님은 강보에 쌓인 아이처럼 깨끗한 시트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뺨만 남은 얼굴에 황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다가가자 아내 임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기다려 주지 못하고 떠나셨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서 집사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압니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2시 13분에 소천했으니 병실에서 관찰실로 옮겨지마자 천국에 입문하신 것이다.

여동생과 처남, 두 아들과 아내, 친인척 열명이 서 집사님 주위에 있었다. 임종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찬송가 301장을 펼쳤다. 서 집사님께서 병상에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301장이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서 집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찬송입니다”라고 말하고 찬양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축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낱도 멸장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가족사진

죽음을 앞둔 서 집사님에게 얼마나 적절한 가사인지 모른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환자 본인과 아내다. 지혜로운 아내 임 집사님은 서 집사님이 입던 경찰복을 준비해 두 아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다. 아내가 보여준 가족사진 중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온 가족이 하늘 높이 뛰면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자인 서 집사님이 가장 높이 뛰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담관암으로 관이 막혀 스텐트를 삽입하기를 반복하면서 기력이 쇠해졌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해양경찰이던 아빠의 당당함을 보여 주고 싶었던 서 집사님의 바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두 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철이 든 것일까?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아빠가 돌아가 영원히 살고 계실 분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손을 모았다.

며칠 전 서 집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 “목사님, 두 아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뭐가 미안한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제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쁩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두 아들에게 “아빠는 지금 어디 계

요?”라고 질문하자 “천국예요”라고 힘 있게 대답했다. “아빠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볼 거예요?”라고 묻자 “하늘이요”라고 했다. 그 대답을 듣고 안도했다. 아버지의 믿음이 두 아들을 잘 살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날 아내에게 남기는 인사도 있었다.

“목사님, 집사님을 너무 고생시켜 미안할 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청할 일이 생겼어요. 잠도 못 자게 깨우고, 잠시도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제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 임영미 집사님은 슬픔을 눌러둔 채 끝까지 함께 있었다.

마지막 주일예배

1월 7일은 서 집사님이 임종하시기 전 마지막 주일이었다. 그날 나는 ‘오늘은 못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다. 부부가 늘 앉아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지난주일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서 집사님 내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의학적으로 살날이 며칠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담관이 막혀 부종이 심하고, 황달까지 심한 상태인데 휠체

어를 타고 암병원에서 별관 4층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린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내어 드리고 싶었던 그 믿음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아내의 헌신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소홀히 했더라면 이러한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환자 곁에서 어쩔 그렇게 잘 보살피는지 아내의 정성 덕분에 연명이 길어졌다.

한번은 “서 집사님 연애결혼 하셨어요?”라고 물었다. 양상하고 눈만 커다란 서 집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미 연애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저희 캠퍼스 커플입니다”라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병상의 고통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환자의 죽음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다.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 혹독하고, 멀다. 암이 온 몸에 퍼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환자는 24시간 동안 보호자만 찾는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으켜 달라”, “눕혀 달라”를 반복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몸의 방향도 바꿔줘야 한다. “다리를 올려라 내려라”도 반복한다. 누가 이 수고를 달게 받아 줄 수 있을까?

아름다운 가정은 환자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보내 드리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하게 도와준다. 호스피스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땀방울을 흘린다.

두 아들은 아빠의 이마에 조용히 뽀뽀했다. 어린 시절 아빠의 뽀뽀를 수없이 받았을 텐데 이제는 아들들이 아빠에게 사랑표현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느낌도 없다. 두 아들은 장차 아빠를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 아빠는 멋진 해양경찰이었습니다. 함께 하늘을 날아오르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몇 달 동안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등을 두드려 주면 “목사님 너무 시원해요”라며 마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좋아하던 서 집사님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장소: 서빙고 비전홀
일시: 3월 7일~5월 2일(매주 수 오후 1시)
문의: 010-8734-4132, 010-3412-7966
접수: iSchool(<http://www.ionnuri.org>),
주일 서빙고 본관 로비 통합 데스크 접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4

규칙 정하고, 안식하고, 사랑하라!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영성을 진단하고 체크해야 한다.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훈 목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이번이 마지막 순서다.

/ 편집자 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크리스천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선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선물을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한 삶의 규칙을 만들라

첫째, 자신을 건강하게 해줄 삶의 규칙을 만들라. 사람은 인생을 되는데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다. 자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일, 활동, 관계, 모임, 즐거가는 장소, 신앙생활 등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서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기를 바란다.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 중에서 영혼을 지치게 하는 것,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정리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1년에 몇 차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그때마다 동행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신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다. 한번은 어떻게 그 사역을 즐기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그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염마의 심정으로 보살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힘겨운 일이지만 본인들에

게는 영적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일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는 일은 없고, 피폐하게 만드는 일만 있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힘든 일도 즐겁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충족시켜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혼을 관리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을 들이고 돈을 써가며 다이어트를 한다. 육체를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것처럼 영혼의 관리, 영적인 삶도 관리해야 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규칙을 세우고 생활하기를 바란다.

‘일’과 ‘쉼’의 조화

둘째,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삶에 참된 쉼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봉사도 열심히 해야 하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

조화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에서 쉼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일주일 중 하루 쉼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기쁨을 주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쉼이 단지 노는 시간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쉼의 내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의미를 발견하고 메모하면서 생활한다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을 잘 해야 한다

셋째, 사랑을 잘 해야 한다. 말씀묵상, 큐티, 성경통독, 일대일 제자훈련 등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 사랑이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사랑을 잘 한다는 뜻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랑을 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이 담겨 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곧 타인에 대한 태도이며, 타인에 대한 태도가 곧 자신에 대한 태도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타인도 존중하게 되어 있다. 타인을 존중함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면 타인도 사랑하게 된다. 타인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사랑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등이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체념하거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단정 짓고 사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한다. 사랑을 받는 것은 싫어하면서 주기만 하거나, 사랑을 주지는 못하면서 받기만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것은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려는 부정적인 방어기제일 뿐이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중시하느라 사랑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연합이 중요하다.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속도를 늦출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다.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순 없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삶의 방법이 가정과 신앙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삶의 규칙을 정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자. 그리고 사랑하며 살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사랑의 연합을 위하여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야 한다”

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도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도들 중에는 지나치게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일만 하느라 영적인 충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관계없이 기능적인 관계만 맺고 일만 한다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일과 쉼의 조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다.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와 같은 계명에는 무게를 많이 두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십계명 중에서 설명이 가장 많이 할당 된 계명이 바로 제4계명(안식일)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쉼을 강조하셨다. 이는 일과 쉼의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원수 되며,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하나님의 상징이다. 사랑은 교회의 상징이어야 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상징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사랑을 잘 해야 한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피 주었다”(눅 10:31-34).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쳐간 사람과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보살피 준 사람이 나온

차세대 패션캠프 4년 만에 개최 (Passion)

2월 23일~27일, 청소년 2천명 참가예정

차세대사역본부가 개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예배축제 ‘패션(Passion) 캠프’가 4년 만에 막 오른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제로 충청북도 괴산군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1차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빙고, 대전, 인천, 남양주, 안산M센터 소속 청소년, 2차는 25일부터 27일까지 양재, 도곡, 수원, 부천, 강동, 평택, 양지, 서산, 태안 소속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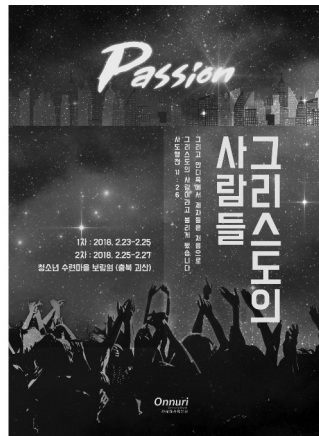
이 대상이다.

이번 패션캠프에는 청소년 2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차세대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5천원이다.

노희태 목사(차세대본부장)는 “이번 패션캠프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215-352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18년 하반기 결혼예배 추천

3월 16일 오후 7시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선교재단이 2018년 하반기(8~12월) 결혼예배 순서를 추천한다. 3월 16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약금 50만원과 교인확인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 타교회 교인은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는 예비신랑신부, 양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온누

리교회 등록교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예비신랑신부는 둘 다 등록교인(타 교회 상관없음)이어야 한다.

추천은 오후 7시까지 참석한 성도에 한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오후 7시 이후 추천 장소에 도착할 경우에는 모든 추천이 끝난 후에 접수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179

양재 02-3215-317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맞춤전도세미나 개최 선착순 450명 모집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와 (사)복음의전환이 함께 ‘맞춤전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3월 19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실제적인 전도 실천 방안을 알기를 원하는 교회 리더십과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바이블칼리지(www.biblecollege.or.k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45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4만원(3월 12일까지 입금하면 3만 원). 문의: 02-2078-3456

온누리 전도학교 18기 훈련생 모집

서빙고 3월 18일, 양재 3월 11일 개강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18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18기 온누리 전도학교는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각각 개강한다. 서빙고는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0주 동안 홍보관에서, 양재는 3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 20분까지 10주 동안 강의동 305호에서 진행된다.

온누리 전도학교에서는 ‘5분 전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진다. 5주차부터는 전도실습을 병행한다.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이스쿨(School)이나 주일통합데스크, 홍보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214

양재 02-570-7431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양지, 대학청년부 ‘YJ공동체’ 예배 신설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캠펠홀

양지 온누리교회가 대학청년부 ‘YJ공동체’ 예배를 신설했다. YJ공동체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양지 온누리교회 3층 캠펠홀에서 열린다.

YJ공동체는 20세 이상 32세 이하 미혼 대학청년들을 위한 공동체다. 지난 주일(2월 4일) 첫 예배를 드렸다. 11명의 청년들이 출석했다. YJ공동체는 대학청년부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섬겼던 최용성 목

사(두란노해외선교회)가 담당한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를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지 온누리교회 YJ공동체는 그동안 별도의 예배 없이 순모임만 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독립된 예배를 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YJ공동체 예배를 신설하게 됐다. 문의: 031-331-8171

NGO 더멋진세상 단기사역자 모집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 단기사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단기사역자로 선발되면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에서 행정, 주일학교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6

바이블칼리지 세미나

2018 봄 학기 기독상담학과

월요일 오전반(오전 10시)

일시: 3월 5일 ~ 5월 28일

내용: 발달이해, 노인상담

화요일 오전반(오전 10시)

일시: 3월 6일 ~ 5월 29일

내용: 인지치료, 심리검사

화요일 저녁반(오후 7시)

일시: 3월 6일 ~ 5월 29일

내용: 기독교상담, 이상심리학

장소: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문의: 02-2078-3456

26기 전도폭발훈련 참가자 모집

2월 26일~6월 4일 서빙고 콘서트홀

26기 전도폭발훈련이 2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주간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저녁반은 오후 7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주일에 마련되는 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원이다.

전도폭발은 총 4단계(1단계 훈련생 과정, 2단계 준훈련자 과정, 3단계 훈련자 과정 상급반, 4단계 훈련자 과정 고급반) 과정이다. 단계별 12주 과정이다. 4단계까지 수료하면 전도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14

아이스쿨: schoolionnuri.org

‘관계기술 세미나’ 개최

3월 21일~5월 9일 서빙고 한동홀

회복사역본부가 2018 봄 회복세미나 ‘관계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3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관계회로와 기쁨 나누기, 감사의 교류, 애착동기화, 고통을 통한 마음의 특성 파악하기, 비언어적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영적성숙도 및 SCL간이정신진

단검사도 실시한다. 회비는 3만 원.

관계기술 세미나에서는 짐 와일더 박사 팀이 개발한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한 19가지 관계기술’을 배우고 훈련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532

2018년 봄 평양남노회 목사후보생 고시 공고

일시: 3월 27일(화)오후 1시

장소: 방주교회(02-586-9191)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구비서류

첫 응시자: 청원서, 이력서(사진첨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확인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각 1부), 세례확인서(교회에서 발급)

※ 당회장추천서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란에 담당목사의 서명을 받은 이후 서빙고 목회행정실로 오셔서 증명서 발급 담당간사에게 추천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례확인서

타 교회 세례자라도 현실적으로 세례 받은 교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신 분은 교회에서 발급합니다(온누리교회 등록교인에 한함)

재 응시자(유효기간 3년): 청원서(상단기록: 불합격날짜, 재시 or 삼시), 이력서(사진첨부) 각 1부

신학생계속청원

신학생계속청원서 1부(장신대 재학 중인 파트전도사 해당, 3학년 제외)

전도사고시 준비서류

청원서, 이력서, 당회장추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교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정치, 면접

제출처: 목회행정실(서빙고) 김경렬 간사 (02-3215-3234)

마감: 2월 23일(금) 오후 5시까지

제1184호 | 2018년 2월 11일(주일)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이미연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도대상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전도대상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전도폭발훈련에 참가는 하지 않았다. 전도문을 전부 외워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 구치소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부담스럽지만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게 됐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놀랐다.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믿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했었다. 그런 내가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달라졌다.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요양원에 계시는 작은어머니를 찾아 뵈었다. 오랜 시간 눈만 겨우 뜨고 있는 작은어머니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다. 영접기도도 해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했다.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께서 “반응은 없지만 다 들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위로가 되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다. 목사님께서 “영이 깨어 있다”고 하신 말씀도 위로가 되었다. 작은어머니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 한번은 전도계획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전도방법과 계획이 전도폭발훈련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모지인 천정과 시택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 통로로 나를 택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다. 지금은 광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임을 잘 알고 있다.

전도폭발훈련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겼다. 지금은 내가 먼저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면 좋겠다.

26기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개강
날짜: 2월 26일~6월 4일
문의: 02-3215-3214

일대일 제자양육 3040세대 맞춤형 수료 간증



/ 신대리라 성도(찬양사역공동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지가 꽤 지났는데 양육자반을 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무슨 양육을 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태교하면서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 태어날 아기에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들어야 태어날 아기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은 급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어렵게 가진 아기는 쌍둥이였고, 임신초기부터 조산기가 있어서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다. 임신 중기에 안정을 되찾자마자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신청했다. 한 과 한 과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 즐겁게 알아갔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36주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퇴원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나의 바람이 전쟁 같은 쌍둥이 육아에 괴물처럼 버렸다. 육아에 치이면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시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

고 있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목회행정실로 향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그날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이천만광장에서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3040세대 맞춤형’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040반은 30~40대 젊은 부부들을 위한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이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대부분이었다. 진도 또한 내가 멈췄던 부분과 동일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시점을 알고 3040반을 예비해 두셨다. 3040반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바로 그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 3040반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 나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에서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기고

고정민 장로
(복음의전함 이사장)

‘(사)복음의전함’은 이름 그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이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중에서 ‘광고’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015년 홍대입구 지하철역에 걸렸던 복음광고 문구이다. 이 복음광고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직장인, 교회를 떠났다가 복음광고를 마주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고등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복음광고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복음광고를 통해 기독교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복음의전함은 2016년부터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음에 큰 빛을 진 나라이다.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빛을 갠기 위해 복음의전함은 전도 대상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로 했다. 전 세계 6대주에서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가장 변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것이 바로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이다.

그 첫 발걸음은 북아메리카 대륙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연시인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29일까지 세상의 모든 광고를 볼 수 있는 뉴욕 타임스퀘어 가로세로 14m나 되는 초대형 광고판에 하나님을 광고했다. 그 광고판 아래에서는 현지교회들이 연합해서 거리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은 현재 3차(2차 아시아, 3차 오세아니아)까지 진행되었는데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매주 전도지를 나눠주며 거리전도를 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유럽에서 캠페인을 앞두고

‘복음광고’를 아시나요?

있다.

지난 2017년 8월,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독일에 갔었다. 당시 캠페인에 함께하기로 결정한 독일 한마음교회를 방문했는데 매마침 주일예배 설교자가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이셨다. 평소 복음광고 사역에 대해 논의하고 나누고 싶었던 분을 독일에서 만나게 되리라는 상상도 못했었다. 나는 복음의전함 사역에 대해 이재훈 목사님께 자세하게 설명 드렸고, 이 목사님은 복음광고 사역에 깊이 공감하셨다. 이 사역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격려해 주셨다. 그날의 인연으로 오는 3월 19일 온누리교회와 복음의전함이 함께 ‘온누리 맞춤형전도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전함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복음의전함은 일상생활에서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전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문화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전도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요즘 시대에 맞는 전도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전도에 대한 변화를 일찍이 받아들였다. 전도대상자 중심의 문화전도집회인 ‘맞춤전도집회’도 개발했다. 맞춤형전도는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전도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도와 다르다. 전도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해서 시행하는 전략적 전도시스템이다.

복음광고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광고이다.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프로필과 이모티콘 등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도 서로의 감정과 느낌,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넉크리스천은 광고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은 생활속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전함이 하고 싶은 사역이다. 용기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광고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장로칼럼

회복사역과 기쁨훈련



권용한 장로
(온누리회복사역 대표장로)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사 61:1), 눈 먼 자, 억눌린 자(사 4:18)에게 놓임과 자유를(요 8:32) 선포하셨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골 3:15) 하여 기쁨을 충만하게(요 15:11) 하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평강 없는(렘 6:14) 안타까운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독, 학대, 외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박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같은 중독자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의 강박적인 사고와 낮은 자존감이 거짓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거짓 정체성이 왜곡된 성격과 습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사람들과 마찰을 빚는 이유는 거짓 정체성에 의한 왜곡된 행동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러한 현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깊어지게 만든다.

또한 수치심의 악순환 속에서 인격이 이지러진다. 자신의 결함이 노출되면 파들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 회복사역은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다. 거짓과 기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고, 참 정체성을 모색하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은 2003년 시작되었다. 올해가 벌써 15주년이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은 월로우크릭교회와 새들백교회 등으로부터 배워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와 시도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초창기 사역팀 구성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지만 기본 취지와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금년은 금요회복예배를 중심으로 회복소그룹, 프리덤스쿨, 내적치유학교,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월요어노인팅, 하트스쿨 등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서빙고, 양재, 수원 온누리교회 15개 사역팀에 편제되어 있다. 각 사역팀에 간증이 넘쳐났고, 회복의 열매도 풍성하다. 아쉬운 점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기쁨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집와 일터 목사, 크리스 코시 목사, 에드워드 코리 목사 등 많은 목회자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학적, 신경신학적, 뇌과학적 훈련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도입하고,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였다.

중독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기쁨을 획득해야 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이 가르침의 이유라고 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쁨을 키우는 방법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출발한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은 올해 3월부터 관계기술 훈련(thrive: 정체성 회복과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2인조 뇌기술 훈련)과 커넥서스(Connexsus: 3인조 그룹의 승리하는 공동체를 위한 훈련)를 시행한다. 또한 ‘기쁨은 여기서 시작한다’란, ‘영성형성반’, ‘재출발반’, ‘소속반’이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 교육들은 회복사역 스태프들이 먼저 수료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공개된다.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상태에서 벗어나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공동체에서 기쁨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교육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해세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권사칼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박경희 권사
(한뫼사역)

한 뫼 한 뫼 정성껏 선물을 만들어 선교지에 보낸 지 벌써 19년이 되어간다.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해도 내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전도용품으로 사용되기 바라면서 1,000개가 넘는 코사지를 만들어 해외비전교회에 보내고, 아웃리치 소품을 만들면서 알게 되었다. 나의 한뫼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번은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뜨거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은 부모가 사역하는 동안 혼자 노는 어린 자녀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상처부위에 벌레가 생긴 적도 있다고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 자녀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을 만들어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인형을 만들어서 선교사님께 보내면 그 자녀들이 뽀뽀뽀뽀한 글씨로 편지를 보내온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오랫동안 한뫼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아이 생일선물을 못 샀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보내주신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인형을 쥐웠지만 울기만 해요. 똑같은 인형을 하나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선교사 자녀들이 밤에 잘 때 인형이 없어 질까봐 몸에 고무줄로 감고 잔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이렇듯 작은 마음으로 보낸 선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

운 기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가 만든 인형을 통해 얻는 치유와 위로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정성이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감동이 커져만 간다. 한뫼사역에서는 선교사님들께 다양한 전도용품도 보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한뫼사역에 참여했던 어느 타교인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께 물품을 보낸다고 했다.

제2의 한뫼사역이 생겼다. 그렇게 한뫼사역이 커져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그들 중 절반이상은 넉크리스천들이다. 그분들이 매년 초에 모여 아이템과 수량을 정하고, 격려하면서 미션을 완수하고 있다. 크리스천들보다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 받을기도 한다.

넉크리스천들에게 선교나 사역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조차 한뫼사역을 천사가 보내주는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하는 한뫼사역이 넉크리스천들을 전도하는 구원사역까지 확장되도록 지경을 넓혀 주셨다.

아직도 전도용품을 보내드리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많다. 안타까울 뿐이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한뫼사역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과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문의: 010-4788-0560

사역칼럼



서선교 팀장
(강서공동체)

나는 탕자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탕자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 사랑을 되찾으면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섬김에 눈을 떴다. 탕자였던 나를 눈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헌신과 순종을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탕자였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묘함 속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게 감사가 없다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회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 내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관심이 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그냥 왔다갔다만 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난 세월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매료된 경험 없었던 나는 돌아오는 시간도 그만큼 늦었던 모양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니 담대한 건 당연했다. 섬김과 순종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녔다. 봉사는 죄성이 있는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주차사역과 재소자들을 섬겼고, 지금은 나눔장터에서 봉사하고 있다. 나눔장터에서 봉사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내기다. 나눔장터는 애뜻한 사연이 많은 곳이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애뜻한 사연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나눔장터를 섬기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나눔장터에서 봉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눔장터를 섬기는

봉사자 한 분 한 분은 천사들이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나눔장터의 버팀목이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이렇듯 가졌던 못 가졌던 나눌 수 있다는 자부심이 나눔장터만이 가진 특징이다.

최근에는 탈북자들도 나눔장터에 동참하고 있다. 그들이 만든 천연비누, 천연향초, 디퓨저, 석고방향제, 수세미 등 자연친화적 제품을 나눔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익금은 사회선교본부를 통해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이웃, 재소자 등에게 전달된다. 사랑과 긍휼로 뿜뿜 뿜친 나눔장터가 소외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성도님들께 부탁이 있다.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물건들을 나눔장터로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 옷, 책, 가방, 신발 등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 그 물건이

꼭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다. 나눔장터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눔장터에 물건을 헌물하는 것 자체가 이웃돕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마음으로 양손 무겁게 나눔장터를 찾아온다.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양손 무겁게 나눔장터를 찾아올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나눔장터에서는 그 소중한 물건들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눔장터에서 함께 봉사할 성도들이 부족하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눔장터는 늘 활기차다.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이 있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있고, 나누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을 주고받는 나눔장터 덕분에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문의: 010-8792-2222

행복을 주고받는 ‘나눔장터’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11~15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증언, 역사 속에 나타난 증인들을 통해 주어진 증언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분명하게 체험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증언이 없는데도 내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

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3:16).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살펴보십시오. 의심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역사에 대한 진실, 인간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가정사역

STEP 1 & 2 YOUA

강경옥 김명림 박미경 박 현 박은아 박성환 김태오 이은수 김래경 정한민 서성배

강서

김옥재 유연경 이동걸 이상선

강촌

김보라 하인혜 김영석 심길보

관악금천

김선혜 서정원 김성민 국종대 맹성숙 최경옥 박동미 연영은 배정숙 명경숙 이민식 조지홍 이창우 이영호 전석순 송남의 차은영 신미정

광명

공수식 이민하 박영인 이순남 최정연 김의선

김포

김민호 백종옥 김신형 이경미 김중태 박용권 신선호 차은숙 이숙향 오미경

노원

박준성 김현수

동대문중앙

김기범 임종철 원종숙 박규리 정구영 정석호

동작

김나리 임선주 김진섭 정용옥 신동숙 윤복숙 양인영 이은숙 유시용 정의일 이미라 엄지용 이재정 김진용 이재원 은누리M 이주현 정명현 이한주 박명철

마포

강현선 이미숙 김정렬 정호경 김종덕 권용한 김현주 김혜정 박나희 라가희 박상민 정인경 박서근 홍광식

박선후

허준범 반승환 이상준 손준일 정희평 안성령 임수현 안영란 이예림 안혜성 김미숙 오복환 배미령 장혜림 원유미 최석훈 김재익

북누리

안순자 이말순 이수연 최수미 이호찬 이미숙

서대문

김성욱 이기범 배윤희 임재희 위세나 김은미 최경애 은누리

서빙고

김소영 조민주 김종국 이찬목 박기도 이경은 안상숙 한성자 오현희 고두연 정금영 정관옥 정성호 이길수 안성호 안광식

성동광진

경국진 김이준 문영란 이지윤 유재성 장창근 이상실 이현숙 이주은 장동원 이재영A 김난아 최동미 박은희 홍난이 성명심 황선영 손소희

일본어예배

ADACHI ANU 이지연 NAGATA CHINA 안인숙 박현식 신민호 이하나 배수영

일산

구현진 여혜숙 김미향 박종희 김중구 송도영 오규희 정은경 이강민 하한수 이금희 정민숙 이윤아 오윤희

신용산

고남선 유수민 김동신 김소연 김희재 김소연 박성임 정애란 박영정 박수연 안성진 최현록 차상윤 손창일

양천

김동비 김명희 김 훈 최동만 김희기 강경록 박연수 정영철 송 희 김옥숙 이선영 권동희

여의도

전예순

이민영 이소진 조 현 조은남

영등포구

김남수 김병균 류경은 김미정 심명자 오현주 이양우 김찬영 이정연 김영주 이하나 고정옥 최유나 최정아

용산

곽은해 노영주 김다정 이현아 김덕자 박은주 김윤정 정현주 김정자 박은주 나도운 김용순 이준성 박세열 홍성철 유태준

이수

김해림 김재덕 선혜민 김진애 안수현 임옥순 오명자 김형숙 오윤미 김희성 유현정 김영숙 조현정 김선정 지대현 한경수 최제하 조택호 한광호 오광록

이촌

김나정 강현진 김윤자 이종희 김태균 이상기 서지현 황선영 정하니 장미영

OCC

심재우 노홍규

OEM

Ricardo G Mora 이강신

SBR릿지

김강연 진애란 김규남 박수영 김현미 이동미 김호정 이숙현 김효성 삼남주 박양선 최지현 박현숙 이윤아 정미향 송현숙 조은주 이상미 차현정 이수현 최석용 김만호 최유진 배해림

양재

기운성 최재영 박정훈 김정현 박주영 김미희 박혜성 박영화 안지석 엄익상 이영림 김영수 이현정 이은자 정설아 신은주 조진우 장우린 황다미 이상숙

찬양사역

이혜진 임지희

특별한초대

최순정 최영희 황혜영 손인숙

한강

김지향 유선미 김혜원 오정원 심완섭 안상현 오승균 박주덕 조하진 이애리 천기윤 문성희

공동체예배

곽안나 이민진 김미실 김영순 김윤진 권소연 김은영 김경조 손지영 조선녀 신유경 유소희 양 진 김승희 이경란 이이성 이순남 김재애 김민숙 오동순 윤강숙 최기영 이미자 정문희 이철우 송인만 정미라 이기선 조은아 김진애 최민정 유은경 최영희 서용득 황경실 임미영

강남D

김민희 손은희 석현수 김경순 오병주 남형석 임혜원 정영옥 지승근 하상우 한규석 하태수

경기A

고혜련 오경진 김난희 김미라 송영환 강치옥 양미경 노미현 이영연 박수현 이창희 임승용 조인정 김난수

남양주

이광로 이성복

분당A

강희선 노현웅 김석향 동우진 김수연 구정희 김학수 최창규 서윤희 김정현 양성원 문동우 오지혜 김시연 이은영 이성희

분당B

류 진 문성희 박위상 정광수 방은혜 홍덕희 신현희 백위현 이은덕 윤량구 이준구 이강훈 전환석 전우진 지선정

강남B

김상덕 황기연 김영일 김은수 김태문 장현식 남광용 권용범 박소윤 김영선 안수연 남병은 유연정 이세화 이승의 최상로 이화중 김규진 최원석 이풍우 최장미 이진우 하대원 편정범

강남C

노정숙 이희련 박인숙 나미정 박정우 김창원 박정훈 이석동 손지영 조선녀 신유경 유소희 양 진 김승희 이경란 이이성 이순남 김재애 김민숙 오동순 윤강숙 최기영 이미자 정문희 이철우 송인만 정미라 이기선 조은아 김진애 최민정 유은경 최영희 서용득 황경실 임미영

강남D

김민희 손은희 석현수 김경순 오병주 남형석 임혜원 정영옥 지승근 하상우 한규석 하태수

경기A

고혜련 오경진 김난희 김미라 송영환 강치옥 양미경 노미현 이영연 박수현 이창희 임승용 조인정 김난수

남양주

이광로 이성복

분당A

강희선 노현웅 김석향 동우진 김수연 구정희 김학수 최창규 서윤희 김정현 양성원 문동우 오지혜 김시연 이은영 이성희

분당B

류 진 문성희 박위상 정광수 방은혜 홍덕희 신현희 백위현 이은덕 윤량구 이준구 이강훈 전환석 전우진 지선정

전은숙 이은경

서초A

권혁민 홍정화 김경선 박인숙 노명숙 정중경 배희숙 김용미 정호진 윤혜선 최윤경 오명진

서초B

고인숙 이한경 김경미 정혜숙 위성민 홍정화 이경훈 황재익 이루미 한경옥 이미희 이은아 이영매 한현숙 홍미숙 김지혜

서초C

김남희 정옥재 김선민 임미영 김진수 최 명 박인숙 오동순 윤강숙 최기영 이미자 정문희 이철우 송인만 정미라 이기선 조은아 김진애 최민정 유은경 최영희 서용득 황경실 임미영

서초D

강민경 정희진 김규리 방 현 김희봉 이세택 문정준 임승호 박현진 최은영 성기는 이희연 송동욱 박희철 이리나 윤미숙 이혜원 조연경 전민준 이동우 정홍석 이형석

송파

김예나 박선희 김철민 양석진 노성령 김진홍 노홍래 임현수 박용진 장원규 박종선 권형택 박한나 진명자 배성훈 최진호 신용구 임영빈 김희정 이기용 이귀환 안희정 이봉희 이신숙 이원희 윤재현 임순정 김경숙 전수현 안효성 정요한 김동원 최병준 한상준

양재

김법환 원재희 김해미 김세희

송애영 정은주

양옥희 신혜원 양하영 이지영 어영순 임기남 유순옥 박장우 윤여숙 박인미 윤철원 김기선 이현정 안지영 정은하 조우현

특별한초대

강은영 심혜영 박백희 유경아 박선하 이자혜 유정열 이병하

푸른누리

강노아 김은영 김홍아 김혜정 김민호 정현진 노경혜 박한우 노누리 우주연 문대석 한병학 민선아 김나영 이기범 김 준 이민희 서동윤 정한일 조영균 조해리 남선덕

Bridge33+

강남임 신은경 박지영 이미희 권창수 김명태 맹주원 이기만 명현숙 김세자 박지영 하지혜 박현정 김영민 박경순 김현옥 오영석 김명관 윤정선 김소형 이상신 이원선 송동욱 박희철 이요한 이강민 이유진 윤지은 이윤희 방성혜 이희정 이재숙 임서권 최재훈 임정국 강석재 장영희 홍숙경 조은성 김은주 최윤준 예정우 황승희 김정란

Point5

박유진 오옥근 송준민 김광순 신미란 성경희 신지윤 유영순 이영선 이선영 이인애 이정은 정현이 김경희 조정서 진달래 천예랑 윤원식

대형

김기운 김영일 김영희 석경순 손우영 강찬석 윤지혜 이은정

길

김은정 이지영 박이레 이은호 박창원 주요성

여호수아

강신실 임지영 구정환 김동준 김미연 임지연 김봉상 박순호 김삼미 임지영 김은비 신 정 김경민 전혜진 김지훈 권혁희 김태림 장정아 김형남 조영의 박세원 서미영 박연아 김경아 박용순 홍충표 박재민 최영민 백경혜 임미경 손민정 남해숙 송수정 문남주 안 솔 이명은 연문주 이신희 오수정 이민경 위진경 장지혜 윤미라 김주연 윤자수 박민주 이경희 김서정 이민정 박소현 이수빈 조윤정 이자선 김수연 임자수 김지연 임채석 김진모 장동욱 조만재 장혜진 김미소 조동민 조동재 조래훈 한우희 조은비 이정남 유준영 이현진 조향진 한명식 진성희 김미옥 최경희 이경숙 최민정 박강우 한나리 오영신

SNS

강영주 곽윤수 광민정 김인기 김나영 이경민 김도현 독고영 김민희 권재현 김민희 유은선 김수진 김화숙 김유경 김미형 김진원 김효진 류수아 홍지희 박기영 최진선 박주연 신성원 박지은 권민아 서영선 박윤선 양한나 김혜근 유지아 황자원 이영재 조향진 은나래 이민경 이상희 윤성호 이소리 장미경 이영재 조향준 최지선 김강우 한나리 오영신

요셉

박정환 박세열 방미인 김경완 안세희 이현철 황서근 이승혜

하늘

박세원 강 건 유정윤 박지영 이근민 강 건 임태현 이승하 장혜원 김은주

하브

강다영 백명은 강현옥 이석열 김보성 박지현 김유진 최윤희 김하은 박덕심 서정용 주희성 신승민 김영일 이신하 이종현

여권일대일

김성은 심은지 김현민 김진숙 이명현 양정희

이영심 김혜령

이정윤 이주연 이호재 이경숙 임하림 장성미 조소연 박은성 조은채 강신희 최귀상 황기연 허은지 이아영

CH630

유형래 홍갑진

J4U

곽미희 김나희 김나래 전애옥 김지향 신지영 노미리 이미숙 안관식 광금봉 장하영 여숙경 주영신 최규연 한석호 조향준 함현주 김 경 하단비 권은경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고경환 권지영 김소옥 김재만 김정무 김지연 김지은 박준식 여민정 위성신 이은옥 이창근 임수현 전기훈 정지민 조재관 주종성 최원일 황원희

신동식 목사반

강희찬 계문순 김민정 김순희 노혁준 류승희 박미선 박소연 서란아 안준석 오우상 이선경 이정숙 이주은 임용자 정승윤 정지태 최미정 최선수 최희진 하지혜 황성훈

최승구 목사반

김경훈 김문경 김민희 김용환 김은주 김진경 남주현 박유진 소병락 신한광 요사파미요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정

정문숙 정승호

최미정 최지선 최황경 한지숙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고경환 권지영 김소옥 김재만 김정무 김지연 김지은 박준식 여민정 위성신 이은옥 이창근 임수현 전기훈 정지민 조재관 주종성 최원일 황원희

신동식 목사반

강희찬 계문순 김민정 김순희 노혁준 류승희 박미선 박소연 서란아 안준석 오우상 이선경 이정숙 이주은 임용자 정승윤 정지태 최미정 최선수 최희진 하지혜 황성훈

최승구 목사반

김경훈 김문경 김민희 김용환 김은주 김진경 남주현 박유진 소병락 신한광 요사파미요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정

W

김경오 이승옥 김희영 이지연 박정은 김희연 이윤희 성창성 임희택 문영기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정

정문숙 정승호

최미정 최지선 최황경 한지숙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고경환 권지영 김소옥 김재만 김정무 김지연 김지은 박준식 여민정 위성신 이은옥 이창근 임수현 전기훈 정지민 조재관 주종성 최원일 황원희

신동식 목사반

강희찬 계문순 김민정 김순희 노혁준 류승희 박미선 박소연 서란아 안준석 오우상 이선경 이정숙 이주은 임용자 정승윤 정지태 최미정 최선수 최희진 하지혜 황성훈

최승구 목사반

김경훈 김문경 김민희 김용환 김은주 김진경 남주현 박유진 소병락 신한광 요사파미요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정

W

김경오 이승옥 김희영 이지연 박정은 김희연 이윤희 성창성 임희택 문영기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정

전태환 정소연

정환민 주승희 최지연 최형준 한은희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고경환 권지영 김소옥 김재만 김정무 김지연 김지은 박준식 여민정 위성신 이은옥 이창근 임수현 전기훈 정지민 조재관 주종성 최원일 황원희

신동식 목사반

강희찬 계문순 김민정 김순희 노혁준 류승희 박미선 박소연 서란아 안준석 오우상 이선경 이정숙 이주은 임용자 정승윤 정지태 최미정 최선수 최희진 하지혜 황성훈

최승구 목사반

김경훈 김문경 김민희 김용환 김은주 김진경 남주현 박유진 소병락 신한광 요사파미요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정

W

김경오 이승옥 김희영 이지연 박정은 김희연 이윤희 성창성 임희택 문영기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정

채연정 최미영

최승돈 최정준 함양분 황선미 황상찬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고경환 권지영 김소옥 김재만 김정무 김지연 김지은 박준식 여민정 위성신 이은옥 이창근 임수현 전기훈 정지민 조재관 주종성 최원일 황원희

신동식 목사반

강희찬 계문순 김민정 김순희 노혁준 류승희 박미선 박소연 서란아 안준석 오우상 이선경 이정숙 이주은 임용자 정승윤 정지태 최미정 최선수 최희진 하지혜 황성훈

최승구 목사반

김경훈 김문경 김민희 김용환 김은주 김진경 남주현 박유진 소병락 신한광 요사파미요

이민욱 목사반

김명희 김상범 김승환 김윤수 방진하 선상희 송임현 유숙현 이송미 이홍석 이희

Acts 29

게시판

2018년 2월 11일(주일) | 제1184호

14 은누리신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은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 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

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은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8일(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은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은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47기 은누리 젊은부부학교 모집

일시: 4월 7일~28일 매주 토

자격: 결혼 기간 12년차 이하(결혼 연차가

초과하신 분은 별도 상담 요망)

비용: 가정당 30만 원(3월 31일까지 입금

시, 4월 1일부터는 35만 원)

문의: 김준하(010-7377-3913)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훈련

일시: 3월 17일~5월 19일 매주 토

오전 7~9시

장소: 서빙고 401호

강사: 이기훈 목사

회비: 3만원

문의: 이동현 집사(010-2905-3849)

두란노서원 도서마케팅팀 디자이너

채용 공고

모집: 디자이너

자격: 경력 1년 이상, 전문학사 이상, 포토

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등 디자인 툴

능통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홍보물, 브로슈어 등)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마감: 2월 28일까지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무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2018 CGNTV

설
특
집
프
로
그
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설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한 명절의 기쁨을 누리세요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개그우먼 조혜련 출연

바쁜 연예계 활동과 힘들었던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조혜련 집사의 웃음과 눈물의 스토리

2월 1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세라핌합창단

아름다운 목소리와 핸드벨 연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찬양

방송 : 2월 16일 금요일 오후 10시 40분



<맞춤특강 나침반>

박인숙 권사(‘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명절, 우리 가족 전도 레시피

방송 :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
앙코르 방송

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는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

방송 :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